

## 안전 안경



민 철 기

지난호에서는 안전관리에서 개개인이 안전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의식이 되어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태도는 하늘과 땅의 차가 있고 결과적으로 입는 재해에 대해서도 의식이 분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의식을 주입시키고 고양하는 것이 안전관리에서는 으뜸으로 되어 왔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행동인데 그 중에서도 각종 안전장구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익히는 것이 큰 과제이다.

여러가지 작업에 임하려면 그 나름대로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게 마련인데 그때 그때마다 여기에 상응하는 보호구나 장비를 꼭 사용하여야만 안전

한 작업을 할 수 있고 또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보호구나 방호구를 사용하는 것은 법(안전보건관리법)에서도 강요되고 있다. 오늘은 이 각종 보호구나 장비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안전안경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잘 알다시피 인류의 외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는 눈이다. 눈이 얼마나 값비싸고 고귀한가는 산업재해보상법을 참고하면 금방 알 수 있다. 이 법에서는 두눈이 실명된 자에 대해서는 사망자에 대한 보상과 똑같은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인체에서 눈 부위가 차지하는 비중을 가늠할 수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눈을 다칠 수 있는 경우는 부수히 많고 더구나 위험한 작업에 임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눈을 먼저 보호할 줄 아는 예지와 훈련이 꼭

필요하다.

우리의 귀중한 눈을 보호하고 아끼려면 우선 아무리 사소하고 하잘 것 없는 작업에 임하더라도 반드시 이「안전안경」을 착용하는 버릇부터 길러야 한다.

작업장에서 안전장구를 철저히 착용하고 일하는 사람의 모습에서는 믿음성과 존엄성이 돋보이며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된다.

여러 보호구 중에서 가장 첫손가락으로 꼽히는 것이 안전안경인 것이다. 따라서 이 안전안경은 안전관리에서는 필수적인 안전장구중에서 최초로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가장 보편적인 안전장구로 통용되고 있다. 구조는 일반 안경과 다를 바가 없으며 렌즈의 강도가 보통 안경보다 보강되어 있고 도수는 특별한 주문에 의하지 않고는 넣지 않고 제작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이 안전안경이나 안전장구가 대량생산 되고 있으므로 어디서나 쉽게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가정이고 하나씩 비치해 놓고 사용하기를 바란다.


눈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앞서지만 그래도 심심치 않게 사고가 많이 나는 부위이다. 이는 안전안경을 철저히 사용함으로써 쉽게 막을 수 있으므로 이 기회에 우리 모두 안전안경을 쓰는 중요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보고 꼭 좋은 습관을 들어서 사고를 막는데 앞장 서야겠다.

1960년대로 기억된다. 이때의 우리 사회는 안전관리에 있어서 캄캄한 한 밤중이었다. 어느 제조업체(외국인투자업체)의 작업장에 들어가 보니까 열대의 유압 프레스 앞에서 작업하는 묘령의 여종업원들이 한결같이 까만테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결 같이 시력이 벌써부터 나빠져있나 하고 딱하게 여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보통 안경이 아니고 안전안경(safety glasses)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몹시 부끄럽게 여기던 기억이 새롭다.

그때 우리 산업사회에서는 안전안경이라는 어휘조차 생소했던 시절이다. 이제는 우리도 많이 발전해서 안전안경은 산업사회에서 지극히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대견스럽다.

홀륭한 작업자는 작업에 임할 때 보호장구를 철저히 착용한다. 그중에서도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안전안경이다.

집안에서 못 하나를 박을 때, 가정주부가 부엌에서 튀김요리를 할 때에도 이 안전안경은 필수적이다. 못이 잘못 튀어 눈을 찔러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거나 뜨거운 기름 방울이 눈에 들어가 깊은 상처를 입힌 경우는 허다한 사례로 기록에 남아 있다.

내 눈은 내가 지켜야 한다. 지키려면 안전안경의 고마움을 알고 이를 철저히 애용할 줄 아는 슬기가 필요하다. 

〈필자=안전 전문가〉